

## 생명철학과 시 (II)

신 동 원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이사, 수필가

### 일월성신(日月星辰)과 산천초목(山川草木)

비록 우리가 21세기 디지털 통신시대에 살지라도  
만약 그대가 어느 청명한 날 오염된 도시를 멀리 떠나  
어느 높은 산 상쾌한 고요함 속에 한밤을 지새워본다면,

그대 가까이서 자연이 베푸는 신비하고도 장엄한 오케스트라 숲에서  
나뭇잎소리 바람결소리 시냇물소리 풀벌레들의 나지막하고 감미로운 소리가  
뮤즈의 여신들이 연주하는 천상의 화음으로 들릴 것이다.

이윽고 지난 날의 어두운 도시, 욕망의 빌딩이 기억에서 사라지며  
그대의 영혼에 태고의 자연이 일으키는 소생의 산들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대 안의 맑은 영혼은 어느 순간 다시 눈을 뜰 것이다.

이제 그대 앞에 거대하고 신비한 하늘의 스크린이 떠오르고,  
이제 어린시절의 꿈들과 아름다운 추억들과 잊어버렸던 그리운 얼굴들이  
영롱한 영상으로 그대의 삶의 한복판에 다가와 그대와 빛의 대화를 나눌 것이다.

반짝이는 별들의 환호성 속에서.

---

1) Philosophy of Life

2) Shin, Dongwon, Former Executive Director of Korean National Parks Service, E-mail: dongwonshin2012@daum.net

별하나에 추억과  
별하나에 사랑과  
별하나에 쓸쓸함과  
별하나에 동경과  
별하나에 시와  
별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 윤동주 시인의 <별헤는 밤>에서 -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별뿔별 하나가 우리의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다.  
마치 저 길고 구슬픈 소리가 하나의 빛을 끌고 가는 듯했다.  
『저건 뭐지?』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천국으로 가는 영혼이에요.』

- 알퐁스 도데의 <별>에서 -



<그림 1> NASA, Veil 성운, 2015

칸트는 ‘생각하면 할수록 언제나 신비하고 거룩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내 삶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요, 다른 하나는 가슴속에 빛나는 양심이다’ 라고 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생명이 있는 영혼에게 보인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인생을 즐기차게 탐구하는 영혼에게 나타난다.

윤동주의 옛 추억이 담긴 별처럼, 알폰스 도데의 연인간 설레임이 담긴 별처럼, 어둠속에 반짝이는 별을 보는 인간은 시냇가에서 자라는 야생화처럼 고귀하게 빛나는 생명이다. 사람은 그 영혼 깊은 곳에 꿈과 연인과 고향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꿈과 연인과 고향. 그들은 별에 새겨진 은유처럼 가능성과 아름다움과 신비함으로, 우리네 삶을 두근거리게 한다. 그리하여 내 생명의 가치를 더 높은 곳으로 떠오르게 한다. 그러므로 저 밤하늘의 별들은 인간에게 태고부터 내려온 생명과 자연의 진리에 대한 향수일지 모른다. 별은 삶의 개념들이며, 동시에 내 삶의 유토피아일지 모른다. 간절한 연민의 길일 것이다. 돌아가신 어머니, 어머니의 영혼일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시는 별을 노래한다. 아직 갈 수는 없어도 언젠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영혼이 진실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곳. 시인들의 아름다운 노래는 저 별과 저 달을 내 삶의 수고스러운 현장에 긍정의 빛으로 연결해준다. 인간만이 밤하늘의 우주를 보며 지난 날을 추억한다. 인간만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연인 서로가 서로의 별이 된다. 인간과 반짝이는 별은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어도 멀리만 느껴지는 사랑과 모순의 관계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모형이리라. 인간이라는 우주 속 생명은 그렇게 간단한 함수가 아니다. 영혼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생물학자조차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 철인정치를 꿈꾸고 노래하던 조선의 선비들

인간은 저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산다. 동양에서 저 하늘우주를 일월성신(日月星辰)이라 부르고, 서 있는 이 땅을 산천초목(山川草木)이라 부른다. 앞서 나는 퇴계, 대승, 율곡 등 조선중기 유교 거장들의 우주논쟁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를 했다. 그들의 理와 氣를 중심으로 한 논쟁은 그리스 철학이나 중국철학의 우주론과 궤를 같이 한다. 더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그리스나 중국의 우주론은 주로 철학자들 사이의 현학적, 존재론적 논쟁이었음에 비하여, 논쟁의 주체인 퇴계·고봉·율곡 등 주요 사상가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정부의 주요 고위관료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도전(1342~1398)에서 정약용(1762~1836)에 이르기까지 조선 400여년. 물론 그 사이

수많은 사회와 당쟁과 그리고 전쟁까지 겹쳐 조용할 시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하여 필자는 조선의 사대부들이 유교적 이상사회를 꿈꾸며 치열하고 즐기차게 전개했던 <철인정치 실험시대>라 부르고 싶다.

그러나 은둔의 나라 조선사회도 16~19세기 세계사적인 계몽사상과 제국주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시대는 그들이 바라는 유교적 유토피아에서 멀어져만 가고, 성삼문, 조광조, 허균 등 수많은 조선의 대쪽 지성들은 다양한 음모와 핍박으로 저 하늘의 별로 산화(散華)되고 또 산화되고 만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퇴계와 율곡이 쓴 두 시 <해바라기>와 <경포대>를 소개한다. 사대부들의 시는 보통 자연을 노래하지만 그 안에서는 주역의 괘효사(卦爻辭) 즉, 상황해석처럼 시인이 살던 시대상황과 시인의 의지나 관점이 나타난다.

산천초목 어디에나 천지정기 서려 있고  
그 중 키 큰 해바라기 우뚝 하늘 바라보네.  
연일 먹구름 몰려오고 폭풍우 쏟아져도  
높은 하늘 향한 정성 어느 누가 막으리요.

物物誰非 天地精  
憐渠偏得 一團誠  
莫嫌近日 連陰雨  
唯向高高 盡意傾

- 이 퇴계 <해바라기(葵花, 규화)> -

퇴계(1501~1570)의 시 규화(葵花) 즉, 해바라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연일 <몰려오는 먹구름>과 <쏟아지는 폭풍우>는 퇴계생애를 전후한 다섯차례의 처참한 사회를 말한다. 1498년의 무오사화. 연산군 때 유자광의 훈구파가 사초를 빌미삼아 김일손 등 신진사류들에게 피바람을 일으킨 이후, 1504년 갑자사화, 1519년 중종의 기묘사화 등으로 김일손, 조광조 같은 젊은 개혁파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조선중기는 훈구파와 사림파, 사림동파와 사림서파간 심한 권력투쟁과 개혁갈등으로 점철되어 '연일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이지변(理之變)의 시대였다.

<天下有道見 無道即隱 (천하유도견 무도즉은, 논어, 태백편)>

공자는 ‘천하에 道가 행해지면 현실정치에 나가고, 천하에 道가 사라지면 야인이 되라’ 한다. 정치를 떠나 자신을 수양하고 강학으로 세상사람에게 덕을 베풀라는 뜻이다. 퇴계는 진유(眞儒)로서 이지상(理之常)의 유토피아를 꿈꾸었다. 道가 사라진 사회당쟁의 권력다툼의 세계를 떠나 들판에서 큰 키로 꼳꼳하게 서 하루 내내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는 퇴계 자신, 유학자의 굳은 절개를 나타낸다. 한편,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머나먼 곳에 항상 존재하며, 사시사철 산천초목(山川草木)을 비추고 있는 <태양>은 그의 이론 속에 <태극(太極)> 혹은 <왕도(王道)>를 상징한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해바라기詩>에는 퇴계가 주창하는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과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의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봄의 신이 천지를 맡으니 자연의 생기가 동서에 퍼지네!  
꽃과 풀이 다투듯 위아래 피어나고 물과 하늘이 똑같이 맑도다.  
버들언덕 금빛가지에 안개가 서리니 지나가는 피꼬리의 장막이구나.  
복숭아꽃이 피워 오르니 아침이슬에 나비날개가 적시었구나.

基春也 東君弭節 灑氣流行 東西兮  
花卉競秀 上下兮 水天 同清  
柳岸金絲 煙鎖流鶯之幕  
桃源花色 露濕胡蝶之翔

- 이 율곡 <경포대부(鏡浦臺賦)> -

율곡(1536~1584)의 시 <경포대>는 율곡이 10세에 쓴 시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 시에는 율곡의 자연찬미와 평화의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율곡을 서화담과 함께 주기론자(主氣論者)라고 한다. 그러나 율곡의 어느 저서에도 자신을 주기론자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율곡도 주자나 퇴계처럼 태극(太極)이 삼라만상과 음양(陰陽)의 근본이며, 이를 어디까지나 이(理)로 규정했다. 그래서 이가 기를 거느리며(主宰), 氣는 理를 타고 있다고 보았다. 두 분 다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이지만 퇴계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율곡은 기발이승설(氣發理乘說)이다.

... 우주의 근본에서 태극은 있지 않을 때가 없다. 이리므로 태극은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추뉴(樞紐: 축과 중

심이란 뜻)이며, 만물의 밑바탕이다. ... 화답은 음양추뉴(陰陽樞紐)의 묘(妙)한 것이 태극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일양(一陽)이 생기기 전에 음기(陰氣)가 음양의 근본인 줄 생각하고 있으나, 성현(聖賢)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 율곡, 박화숙에게 답함, 율곡집-

이러한 유교의 우주론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가지고 율곡의 시를 읽으면 어려운 문자보다 더 쉽게 자연세계와 사회에 대한 율곡의 조화와 생명사랑의 정신을 읽을 수 있다. 퇴계는 도가 없으면 야인이 되라고 공자의 말을 따랐지만, 율곡은 나라가 흔들려도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제도와 문물로 개혁하려고 했다. '자연의 생기'는 <동쪽>에나 <서쪽>에나 다 스며들고 있으며, '물과 하늘'은 <키가 큰 꽃>에나 <키가 작은 풀>에나 똑같이 흐르며 비추고 있다는 태극의 큰 사상이 율곡을 바쳐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율곡을 동인보다 서인, 영남학파보다 기호학파로 구분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율곡의 삶을 보면 태극사상 아래 나라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 포용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었다. 그는 사실상 순교정신으로 몸을 던진 실천사상가로 보인다. 1583년 2월 율곡은 시무육조(時務六條)를 논하며 국가의 갑작스런 변고(變故)에 대비하여 선조에게 십만양병설(十萬養兵設)을 유언(遺言)처럼 주장한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사랑하는 어머니 신사임당과 같은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 황무지(The Waste Land)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꽃을 피우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시들어버린 뿌리를 봄비로 일깨운다.  
 겨울이 오히려 우리를 따뜻이 해주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고,  
 깡마른 줄기로 작은 생명을 길러주며  
 여름은 우리를 급습해 왔다. 슈타른베르게르호(the Starnbergersee)를 넘어.

- T. S. Eliot(1888~1965), 황무지, The Waste Land(이재호 옮김)-

황무지(waste land)의 반대말은 생명(life)이다. 앞서 시인 율곡은 <봄의 신>이 천지(天地)를 맡으니 자연의 생기(生氣)가 동서(東西)에 퍼지며, 4월의 경포대엔 꽃과 풀이 다투듯 피어나고, 안개가 금빛 버들가지에 서리니 피꼬리가 운다고 노래했다. 그러나 시인 엘리어트는 부활축제가 있는 4월을 <잔인한 달>로 선포한다. 라일락꽃은 죽은 땅에서 지쳐 있고, 봄비는 힘겹게 시들은 뿌리를 깨운다. 깡마른 줄기에 붙어 있는 작은 생명이나마 키우려 하나, 땅은 이미 비옥했던 과거를 잊어버린 듯하다. 차라리 추웠던 지난 겨울이 우리들에게는 따사로운 사랑과 생명의 계절이었다.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아니라 자비와 절제와 희생이 사라져버린 정신적 황무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1918년.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그리고 엘리어트는 전쟁 중에 이 시를 쓴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삶의 의미도 없이 싸우다 저 세상으로 가는 젊은 병사들을 생각하면, 시인 엘리어트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은 참담한 슬픔에 휩싸인다. 봄의 모든 산과 들에는 생명의 신비가 지난 겨울의 껍질을 깨뜨리고 땅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계절이지만, 세계대전이라는 죽음의 변주곡이 온 세상에 퍼지는 당시, 이 땅은 지금 인간의 삶이 존재할 수 없으며, 지상의 4월은 잔인할 수밖에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이 시를 쓰는 계기가 되었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정신적 황폐함이 결국 전쟁을 야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신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잔인한 4월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1부의 1연, <4월을 잔인한 달>로 잘 알려져 있지만, 난해하기로 유명한 장편시다. 엘리엇은 5부로 구성된 시를 통하여 20세기의 황폐한 인간사회가 다시 건강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의 화자(話者)가 성배(聖杯)를 찾아가는 신화적 방법으로 스토리를 전개시킨다. 여기에는 특정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기독교, 불교, 우파니샤드교, 여러나라의 설화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며 시 전체를 현대판 신화처럼 전개시켜 나간다. 정신적 황무지의 극복은 지구촌 전체의 문제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제1부 『죽은 자의 장례』 편에서는 부활절이 있는 4월에 죽은 목숨만 이어가는 4월을 매개로 서구 문명의 황폐한 상황을 추상적으로 서술한다. 제2부는 『체스게임』편으로 상류사회의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삶, 그리고 하류사회의 비참한 삶과 대조시키며 현대인의 황무지를 그리고 있다. 제3부 『불의 설교』란 제목은 석가의 『불의 설교』에서 따온 것이라고 시인은 설명한다. 제2부에 이어 더 구체적으로 현대인이 육체적으로 욕망의 불에 타는 모습을 노출시킨다. 제4부 『의사』편은 한 연으로 짧은 시다. 베네치아 사람 플레비스의 물에 빠져 죽음을 읊은 것으로, 제3부의 타락과는 달리 원초적



무(無) 또는 삶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 선각자로 해석하기도 한다. 제5부 『천둥의 소리』가 이 시의 결론이자 정신이 황폐한 인간황무지에 대한 구원의 소리다. 천둥은 비를 가지고 있으며, 비가 내리면 메마른 황무지에 생명이 다시 소생하기 때문이다. 천둥이 현대인에게 울려주는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엘리엇은 산스크리트어로 세 교훈을 제시한다.

그때 천둥이 말했다.

Datta: 베푸라. (Give alms)

Dayadhvam: 공감하라. (Sympathize)

Damyata: 자기를 다스리라. (Control yourself)

나는 기슭에 앉아

그 메마른 벌판 뒤로 낚시를 드리웠다.

하다 못해 내 땅들만이라도 바로잡아야겠지?

런던다리 무너져요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리고 그는 정화(淨化)되는 불 속으로 몸을 감추었다.

Fishing, with the arid plain behind me

Shall I at least set my hands in order?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falling down

*Poi s'ascose nel foco che gli affina*

- T. S. Eliot(1888~1965), 황무지, The Waste Land(황동규 옮김)-

이는 남을 더 사랑하라는 자비로운 마음(Datta)과,

이는 모두의 일에 더 공감능력을 가지라는 정의로운 감성(Dayadhvam)과

이는 스스로의 욕망을 더 절제하여 성숙한 영혼(Damyata)을 가지라는 말이다.



##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로 가자.

천둥은 빗물설교를 통해 아직도 정신적 황무지에 있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도 축축히 생명의 물을 뿌리고 있는지 모른다. 인간은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아무리 세상이 디지털 통신사회로 변한다 해도, 연어가 자연의 주파수를 따라 수십키로 수백키로를 돌아돌아 연어의 고향에서 다시 알을 낳듯이, 인간도 본래의 살아 있는 영혼을 찾아 진정한 생명을 회복해야 한다.

영혼은 형체는 없을지라도 인간 존재의 본질이요 고향이다. 인간은 그의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과정을 마치 없던 것을 창조해가는 과정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럼으로 마치 인간이 자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오만한 존재가 되기 쉽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화 과정이 깊어갈수록, 인간은 오히려 더욱 자연생태계의 기적적인 비밀의 모습을 더욱 이해할지 모른다. 1865년 멘델이 수천번의 완두콩 실험을 통하여 완두콩은 2세대, 3세대를 쭉 지나며 그 다양한 특징들이 유전정보를 통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로부터 90년 뒤 1953년 왓슨과 클릭이 세포속 핵에서 아름다운 기하학적 배열의 DNA 염기서열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자연의 신비함에 경탄했다.

자연은 그 자체가 하나의 생동적인 시스템이다. 자연의 단계적 진행에 의한 운동은 스스로 자기자신을 조정하며, 자기 자신 속으로 복귀(復歸)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찾아가며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신이요, 영혼의 질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연어가 고향으로 수십키로 수백키로 돌아가서 자신의 알을 낳는 것은 과학이 설명을 할 수 있어도 해명은 할 수 없는 자연의 순환이요 생명의 비밀인 것이다.

기나긴 다섯 겨울이 지나  
나는 다시 이 곳에 왔다.  
그리고 다시 듣고 있다.  
이 땅 깊은 곳에서  
부드럽게 속삭여 주는 이 냇물소리를

나는 다시 보고 있다.  
여기 울창한 시카모나무 아래서

꽃익은 이 계절의 열매들과  
푸른 옷으로 갈아 입은 크고 작은 나무와  
지금은 사라진 이 오두막집, 옛터를.

아, 사랑하는 나의 누이, 자연이여!  
그대의 목소리 속에서 나는  
내 지난 날의 언어를 찾아내고,  
원시림 속 빛나던 그대의 눈빛 속에서  
나는 지난 날의 환희를 기억하노라.

- William Wordsworth(1770~1850), 틴틴사원에서-

시인의 감성은 예리하다. 자본주의가 성숙해지고, 권력자가 권력의 맛에 취하고, 세상은 기계화되고, 거리는 자동차로 휩싸이고, 우리들의 대화는 소리나 문자로만 하는 시대가 왔다. 이 자연의 생태계는 도시나 공업지구로 바뀌고, 맑았던 하늘은 미세먼지로 가득찰 때, 그곳이 성숙한 문명이 아니라 알고 보니 황무지였던 것이다. 엘리엇 시인은 1922년 전쟁과 자본주의의 광풍 속에서 이미 오늘의 모습을 예측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다. 세상은 늘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에 모두에 의하여 변한다. 인간들아, 너무 보이는 손에만 의지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손이 인간의 의지와 욕망을 넘어서는 보다 큰 질서다. 그것은 공존의 질서일 수도 있고, 자연의 법칙일 수도 있고, 신의 섭리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온 방식대로 앞으로도 살리라' 라는 판단은 사람들에게 비극을 초래하기 쉽다.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여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듯이, 이 21세기의 인류도 스스로 낙원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엇은 <불의 설교>에서 예언하고 있다. 땅이 비옥함을 잃거나 그 생의 터가 사라지면 그 땅에서는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땅이 더러워지기 전에 이미 인간의 정신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다. 인간과 자연은 다시 그 본래의 모습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난해한 엘리엇 시인의 깊은 뜻인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헤겔이 그의 철학강의 마지막 시간에 인용한 어느 동양 시인의 시를 필자도 인용한다.

나는 보았다. 마음 속을  
마음은 바다였다.  
수많은 꿈으로 가득찬 세계의 공간이었다.

태양이 너의 빛남의 작은 한 빛남에 불과하여도  
그래도 나의 빛과 너의 빛은 근본에서 다만 하나다.  
어떻게 하여 그러는가.  
천공(天空)에 비치는 생명(生命)의 말이  
다만 마음자리의 좁은 곳에 안주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여 그러는가.  
썩은 흙을 먹고 진흙물을 마시면서도  
장미숲의 충만한 광명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어찌하여 아침바람이 불어오는 가를.  
사랑의 장미숲에 꽃봉우리를 언제나  
신선하게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는 창조의 모든 수수께끼를 이야기한다.  
모든 수수께끼의 해결은 오로지 사랑에 달렸다고.